

한국 육가공산업의 현황과 문제

김 동 곤 / 한국 육가공협회 부회장

1. 국내 원료육(돼지) 가격현황

가. 축산폐수등 양돈여건의 악화에도 93년 이후에는 양돈 질병으로 인한 사육두수의 감축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더욱이 U.R협상결과 발

1) 지육가 및 제품원가 영향

	'89	'90	'91	'92	'93	'94	'95.3	'95.6
지육가(W/kg)	1,647	2,574	2,697	2,050	2,140	2,356	2,510	2,782
지수	100	156	164	125	130	143	152	169
제품원가영향(%)	—	33.8↑	38.3↑	14.7↑	18.0↑	25.8↑	31.2↑	41.4↑

가. 육가공 제품원가의 60%이상을 점하는 돼지고기 가격이 90년에는 전년에 비해 56%가 올라 제품원가가 33.8%나 상승요인이 발생했으며 91년에도 돼지가격이 더 올라 38.3%의 제품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하였다.

표이후 돼지가격의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사육두수는 정체되고 있는 양돈구조로 정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사육두수의 증가 및 돈육 공급의 확대에 의한 돼지가격 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

나. 92~93년에는 돼지가격이 주춤하더니 95년 현재 돼지가격은 94년에 비해 26%가 더 올라갔고 89년에 비해 69%의 원료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육가공제품의 원가가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95년 69% 상승의 돼지가격은 유례없는 상승율이며 또한 육가공 제품의 원가상승 요인이 41.4%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

나. 95년의 돼지가격은 국내 사육기반의 구조적 공급부족 현실이 지속됨으로써 94년 돈육 수입규모 34,600M/T(MMA QUOTA-17,500M/T,수급조절용:17,100M/T)를 수입하여 추가 증가공급하더라도 94년의 가격대비 6%-10%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돈육가격 경쟁력 비교

2) 금후 원료육 가격 전망

	'89	'92	'94	'94 생돈가 기준 비교지수	연평균증가율
한 국	1,089	1,353	1,555	100	7.4%
미 국	640(0.95 U\$)	713(0.91 U\$)	710(0.88 U\$)	46	-1.5%
덴 마 크	899(9.7 DKR)	1,098(8.4 DKR)	832(6.6 DKR)	54	-7.4%

가. 국내 원료돈가의 경우 89년 이후 지속 상승하여 연평균 7.4%씩 계속 원가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반면, 해외 원료가는 계속 안정세를 유지하여 국내제품의 경쟁력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

나.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1967년부터 돈육의 QUOTA 수입이 활성화된 이후 1971년도에 가공용에 한하여 돈육수입을 완전 자유화

시킨 연후에야 햄, 베이컨등 육가공제품이 1972년도에 순차적으로 자유화되었기 때문에 수입 자유화에 대한 육가공업체의 대응이 가능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원료육이 개방되기 전에 완제품 수입 자유화가 먼저 되어 외국업체들의 값싼 원료육을 사용한 저가의 완제품이 대량으로 수입되어 국내 가공업체들은 더욱 큰 타격을 받고 있다.

3. 국내산과 수입 자유화된 육가공 제품과의 연관현황

가. 수입 자유화된 육가공 제품의 수입량

(수입량 M/T, 관세율 %)

구 분	수입자유화 시점, 관세율 시장 점유율	'87	'88	'89	'90	'91	'92	'93	'94	비 고
캔	'87. 7. 1 관세율 시장 점유율	566 30% 14.6%	1,660 30% 28.5%	2,959 30% 39.2%	2,560 50% 28.0%	1,783 40% 17.8%	2,240 40% 18.6%	2,185 30% 19.5%	2,374 30% 20.0%	*간급관세적용시기 '90.7~'91.6:50% '91.7~'93.6:40%
소시지	'90. 1. 1 관세율 시장점유율	—	—	—	940 28.8% 3.3%	2,322 28.8% 6.4%	3,009 28.8% 7.9%	3,790 28.8% 10.0%	1,725 28.8% 4.8%	*유통기한으로 인한 수입품 반송 으로 일시 중단
베이컨	'94. 1. 1									

나. 국내산 육가공제품의 출고가격 추이

(₩/kg)

	'89	'90	'91	'92	'93	'94	89/94 대비
햄	4,513	4,761(5.2%)	5,006(5.2%)	4,870(-2.7%)	4,343(-10.2%)	4,287(-1.3%)	-5.0
소시지	3,327	3,381(1.6%)	3,642(7.7%)	3,713(1.9%)	3,652(-1.6%)	3,684(-)	+10.7
캔	4,908	4,849(-1.2%)	5,101(5.2%)	5,104(-)	5,061(-0.8%)	5,036(-0.5%)	+2.6

* () 안은 전년대비 가격 상승률

다. 현행관세율 소시지 30%, 캔 30%하에서의 수입제품의 소비자 가격

(원/EA)

	베이컨	캔	소시지
수 입	5,000/kg	1,200/340g	1,300/460g
국 내	8,300kg	2,200/340g	2,400/460g
비 율	60%	55%	54%

(1) 87년 캔제품, 90년 소시지 제품, 94년 베이컨이 수입자유화됨으로써 수입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 10%로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이보다 점유율이 더 증가될 것은 불보듯하다. 캔의 경우 당 협회가 산업피해 구제를 신청해서 관세율을 인상한 관계로 90~93까지 주춤했으나 산업피해 구제기간이 완료된 이체부터는 급격히 상승될 것이며, 또한 소시지는 유통기한 초과로 수입품 일부를 반송한 관계로 일부 수입이 중단상태로서 94년에 20%이상 증가될 것이 이로 인해 안되고 있을 뿐이다.

(2) 육가공제품의 원가중 60%를 차지하는 국내원료 돈육의 가격이 해외 수출국 대비 약 2배정도 높은 수준으로서 원료가격의 차이가 바로 경쟁력의 차이가 되고 있어 수입제품의 국내 소매가격이 국내제품 가격의 반값에 해당된다.

(3) 국내산 제품가격의 54~60%에 불과한 수입육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계속 확대됨으로써 국내업체는 저가 수입제품에 대응하기 위해 저가격의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경쟁력이 높은 수입육제품은 계속 국내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 반면 국내산은 생산이 위축되고 있다.

(4) 수입자유화된 소시지, 베이컨제품의 냉동수입 및 냉동상태 유통이 한국정부에 의해 규제가 됨으로써, 95년 전반기 즉, 현재까지는 소시지, 베이컨 제품의 냉동수입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였으나, 한미 통상협상에 의해 95년 하반기중 유통기한연장과 냉동수입 및 유통이 허용될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95년 하반기 이후 캔, 소시지 및 베이컨의 수입량이 대폭 늘어나서 국내유통시장 점유율을 50%이상 차지하게 될 것이다.

4. 육가공 제조상 인건비등 원가상승 현황

	제조원가 비중	연 평균 인상율	원가상승요인('94/'89)	비 고
인건비	11.6%	10.5%	7.5%	'89년 이후 연 평균 및 누계 인상요인
포장비	15.9%	3.2%	2.7%	
기타 경비	11.4%	3.2%	1.9%	

가. 주원료인 돼지고기 가격 상승요인 이외에 인건비등의 제조원가도 누계 12.1%에 달하는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나. 89년 대비 원재료 41.4%, 인건비의 12.1% 등을 합산하면 53.5%의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5. 혼합제품의 원료가격 상승현황

	'89	'90	'91	'92	'93	'94
연육가격(W/kg)	1,400	1,550	1,900	2,500	2,400	2,200
(지 수)	(100)	(111)	(136)	(179)	(171)	(157)

가. 혼합제품 원가의 40%를 점하는 연육가격도 89년 대비 57%가 상승함으로써 원재료만으로도 22.8%의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공해상 조업규제에 따른 수산물 원료공급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가격의 지속 상승이 확실시되어서 혼합제품 제조 또한 난관

에 봉착하고 있다

나. 따라서 95년 6월 현재 돼지가격 상승 및 인건비등 기타 제조비용의 증가로 인한 제조원가는 89년 대비 53.5%가 상승하였으나 제품가격은 90년, 91년 인상으로 누계 15.4%에 그

쳐 38.1%에 달하는 제조원가 상승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인 반면, 제품 출고가격은 95년 현재 햄의 경우 오히려 5%가 인하되었고 소시지는 10.7%, 캔은 2.6%의 가격상승에 그쳤다.

6. 현안문제점 요약

가. 육가공 원료육인 돼지고기 값은 89년에 비해 95.6월에는 무려 169%가 상승한 반면 육가공 제품 출고가격은 90년에 8.5%와 91년에 6.4%인상에 그쳐 누계 인상율이 14.9%인 바 원료육 원가상승 부담이 54.1%(39.2%)나 되는 원료육 원가 압박을 받고 있다.

나. 앞으로도 현 축산폐수 및 질병등 양돈여건 악화상태로 원료육인 돈육가격의 안정은 기대하기가 어렵고, 95년 부족분 34,60M/T를 수입한다 해도 94년보다 돈육 가격은 6~10%가 상승한 고돈가가 형성될 전망이다.

다. 외국의 돈육가격은 89년 대비 94년까지 6년동안 미국이 +10.7% 상승과, 덴마크 -7.3% 하락되는 등 계속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돈육은 169%(7년간)의 상승세로서 국제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다.

라. 현행관세를 30%하에서의 육가공 수입제품의 가격은 국내소비자 가격보다 캔의 경우 45%, 소시지 46%, 베이컨은 40%씩이나 싼 가격으로 판매되니 도저히 수입 육가공품과는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 국내산 육가공제품의 출고가격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국제경쟁을 위해 최대한의 가격인하 또는 저가품을 생산하는 등 89년 대비 94년(6년간)의 출고가격은 햄의 경우 오히려 -5.0% 인하하고 소시지는 +10.7%, 캔은 +2.6%밖에 인상하지 않은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통상 수입 육가공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바. 육가공제품 중 캔은 87년에 소시지는 90년에 수입자유화되었으나 캔의 경우 수입후 2~3년만에 국내시장을 40%나 점유하여 산업피해 구제신청으로 긴급관세를 적용함으로써 94년에는 20%에 그치고 있으나 긴급관세가 해제된 현시점에서 95년부터는 급격히 증가될 것이며, 소시지 또한 94년에 유통기한 위반으로 인한 수입품 반송으로 일시중단되어 94년에는 4.8%에 그치고 있다.

사. 그러나 소시지, 베이컨의 냉동제품 수입이 현재까지 정부의 통제로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한미 통상에 협의에 의해 95년 하반기중 냉동수입 및 유통기한 연장과 유통체제의 허용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95년 하반기 이후 소시지 및 베이컨까지 수입량은 대폭 증가될 전망이다.

아. 원가인상 부담에는 원료육 가격인상 외에도 인건비등 원가상승 요인이 12.1%나 되어 기히 제품출고 가격인상분 14.9%를 제외한다 해도 53.5%(41.4%)라는 어마어마한 부담을 육가공업체가 안고 있다.

자. 또한 혼합제품등 저가품을 제조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해도 연육가격이 89년 대비 94년까지 157%가 상승하여 혼합제품 역시 국제경쟁 제품으로 제조할 엄두도 못내고 있다.

7. 현안요약 및 희망사항

가. 현안 요약

1) 국내돈육가는 국제가격보다 약 2배 고가이고, 수입자유화된 육가공제품은 국내 시장에서 국산제품보다 약 1/2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는 반면, 원료육의 수입은 정부에서 수입을 제한하고 있어 업체들은 고가인 돈육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국제경쟁시대에서 육가공업체들의 운영은 장래 불투명하기만 하다.

2) 그렇다고 원료육 가격상승에 따라 제품가격을 인상코자 하면 물가안정 차원과 독과점 품목이라는 명목으로 제제당하고 또한, 국내유통 가격의 1/2밖에 되지 않는 수입품과의 가격 경쟁에서도 가격을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서, 근래들어 육가공업체들 중 부도회사가 속출하는 것도 이러한 사유인 바 국내 육가공업체들은 한마디로 풍전등화격이다

3) 수입 자유화된 캔은 이제 긴급관세가 해제됨으로써 수입관세가 30%로 인하되고 소시지, 베이컨등도 한미 통상협상에 의해 유통기한 연장조치로 95년 하반기중 냉동수입 및 유통이 허용될 것인 바, 육가공품의 수입은 급격히 증가되어 국내 유통시장을 문란케 할 것이다.

4) 일본의 경우 육가공품 수입개방전에 가공에 한해 원료육부터 수입개방한 후 서서히 육가공품 수입을 개방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 선례로 보아 일본은 참으로 슬기롭게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있음을 귀감삼아야 할 것이다.

나. 건의 및 희망사항

1) 원료육(돈육)가격을 국제수준으로 생산해서 공급해 주어야 육가공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며 국제개방화 시대에 경쟁할 수가 있다.

2) 아니면 육가공품을 수입자유화한 이상 가공원료육에 한하여 수입관세율을 인하해서 조기 수입자유화를 시켜 수입 육가공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조치가 필연적으로 도대된다. 요는 원료육을 국제시세와 같은 가격으로 사용케 하여야 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수입자유화된 육가공제품의 수입관세율을 국내제품과 근사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WTO제소등 국제화 문제로 제기될 것이 불보듯하다.

3) 현행 원료용 냉동돈육의 수입관세율은

35.8%이며 수입제품인 소시지의 수입관세율은 28.8%인 바 형평에 맞게 수입하는 원료육과 육가공제품의 수입관세율이 같은 비율로 조정이 되어져 국제경쟁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다. 육가공산업과 양돈산업과의 연관성

1) 현상태가 계속 유지될시 95년 후반기부터 우리나라 육가공업체들은 설 땅이 없게 될 것이다. 즉, 이제까지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규제 및 제재등으로 수입을 억제하였으나 긴급관세의 해제 및 냉동식품, 냉장육의 유통기한 연장등 일련의 국제화 정세에 따라 엽가인 수입 육가공품이 홍수처럼 수입될 것인 바 국내육가공업체들은 제품을 제조할 여건도 못 되고 차라리 외국산 가공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회사운영이 될 것이다.

2) 소비자의 소비심리는 엽가이며, 질이 좋고 이용에 간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돈육을 원료로 한 육가공품의 소비현황을 보면 미국이 70%, 일본이 40%정도이며 우리나라는 94년 약 11.5%로서 육가공업체의 존재가 그리 크지는 않으나 앞으로 일본과 같이 30~40% 이상 육가공품을 소비한다면 양돈가들은 생산한 돈육을 판매하는데 있어 육가공업체를 최고의 고객으로서 공급하지 않으면 판로가 없게 될 것이다.

3) 상기와 같은 사유로 육가공업체들의 현주소가 불분명하게 될시에는 양돈가가 생산한 돈육은 판로가 없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즉 육가공업체가 도산하면 양돈가도 판로가 없어 같이 도산하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이 있는 한 육가공업체가 있고 육가공업체가 있는 한 양돈산업이 있는 共存共生 關係이다. *